

법무매거진

차기 대법원장으로 김용덕·강일원·오석준 등 물망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이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조에서는 차기 대법원장이 누가 될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1. 6년 임기 모두 채울 수 있는 인물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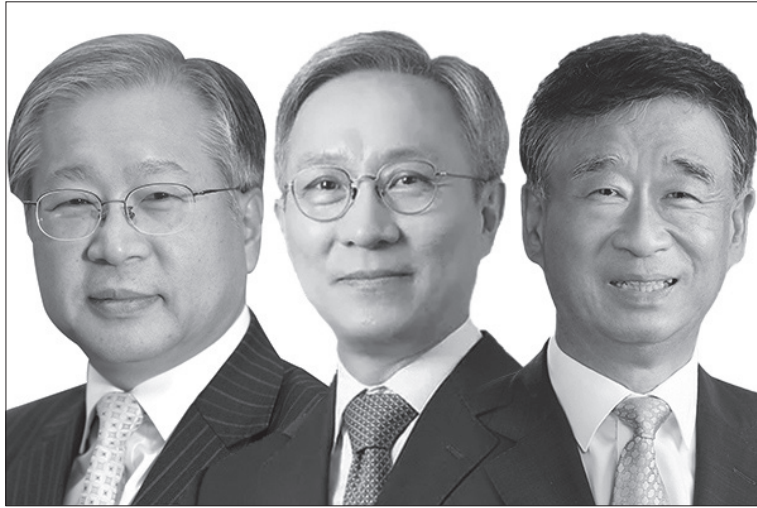
먼저 대법원장 6년 임기를 다 채울 수 있는 후보자로는 김소영(58·19기), 김재형(58·18기) 전 대법관과 오석준(61·19기) 대법관, 강일원(64·14기) 전 헌법재판관과 이종석(62·15기) 헌법재판관, 이균용(62·16기), 홍승면(59·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등이 물망에 오른다.

김소영 전 대법관은 여성임과 동시에 사법 사상 첫 여성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역할을 훌륭히 해냈다는 점이 강점이다. 김재형 전 대법관은 법리에 해박하고 최근까지 대법관을 지낸 만큼 내부 사정에 밝아 향후 대법원을 잘 이끌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오석준 대법관은

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 경력으로 대내외 소통 능력은 물론 법원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현직 대법관이 대법원장으로 임명되면, 해당 대법관이 대법관직을 사임하고 대법원장으로 새로 임명된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과 이종석 헌법재판관 모두 정통 법관 출신으로 강 전 헌법재판관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이 헌법재판관은 수원지법원장을 지내는 등 헌법재판소는 물론 법원 내부에서도 많은 존경을 받는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균용,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모두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을 만큼 대법관 1순위로 거론됐던 인물이다. 이균용 부장판사는 두 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고, 홍승면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하는 등 사법행정과 법리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용덕·강일원·오석준〉

2. 6년 임기는 못 채우지만, 강력한 후보로 거론

4년 3개월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고 법률가의 필수서적인 ‘민법 주해’와 ‘주석新民사소송법’, ‘주석 민사집행법’을 공동집필 하는 등 재판 실무와 법률이론에 두루 정통하다고 평가받는 김용덕(66·12기) 前 대법관도 강력한 후보로 꼽힌다. 김 前 대법관은 대법원장으로 임명되더라도 정년(70세) 도래로 임기를 끝까지 못 채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2027년 5월 9일까지로, 약 6개월 뒤인 같은 해 11월 19일(대법원장으로서의) 정년이 도래하는데 차기 대법원장을 다음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점에서 야당에서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외에도 윤석열 정부 임기 내 두 번 임명할 수 있는 후보자가 다크호스로 떠오를 수도 있다.

3. 임명 절차의 변수는 ‘국회 통과’ 여부

대법원장 임명 절차의 변수는 ‘국회 통과’ 여부라는 분석도 나온다. 내년 4월 10일로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법원장이 임명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대법원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그 대행은 선임 대법관이 맡게 된다. 법원조직법 제13조 제3항은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재연 대법관 퇴임 후 선임 대법관인 안철상 대법관의 임기는 2024년 1월 1일까지다. 안 대법관 퇴임 후 선임 대법관은 김선수 대법관이다.

(출처/법률신문)